

들어가는 말

갈수록 걱정거리가 넘쳐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오늘도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말

시편 23편은 어려서부터 양을 쳤던 목자이자,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섬기던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더욱 신뢰가 갑니다. 이스라엘의 기후와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서 목상하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목자가 양떼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하는 일이 4가지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돌보고,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양이 해야 할 일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한 목자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친밀함 뿐만 아니라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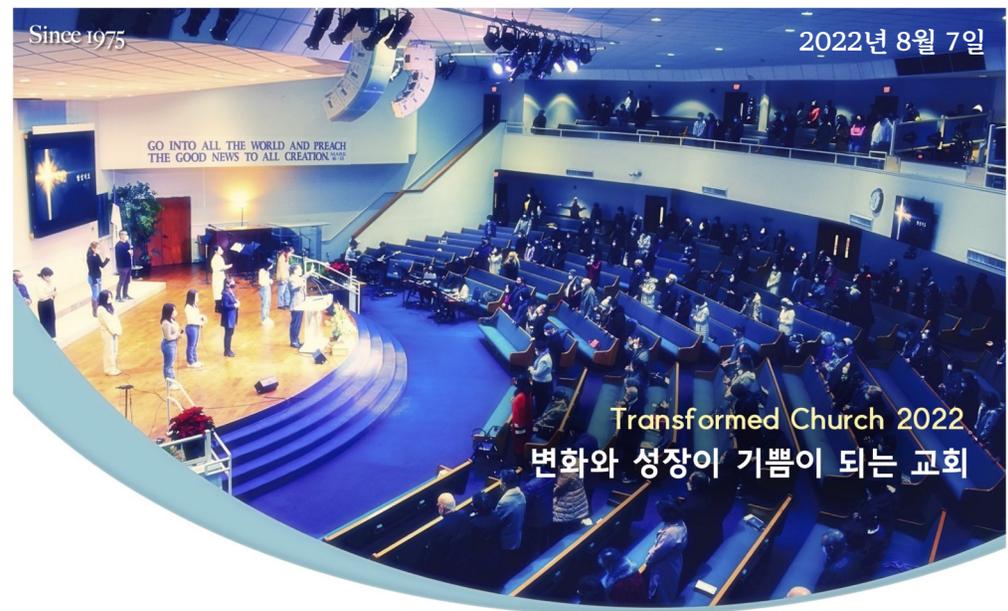
양들이 풀밭에 편안하게 누으려면 적어도 4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둘째, 다른 양들과의 관계 안에서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파리를 비롯한 벌레들이 없어야 합니다. 넷째, 배가 불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많은 작은 짜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맹수 같은 위협은 아닐지 몰라도 파리처럼 자잘하고 성가신 일들 때문에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이 때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은 주님의 인격과 임재에서 비롯되는 치유와, 진정의 효과가 있는 해독제를 나의 특정한 문제에 하나 하나 적용하며 도우십니다.

맺는말

예수님은 양의 처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려고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오는 한주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기름부으심으로 담대함과 평안 가운데 승리하시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목상질문

1. 지금 내 삶에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2. 양이 누울 수 있는 네 가지 조건 중에 혹시 내게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3.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수요예배

- 장년 한어예배 7:00PM / 본 당
- 장년 영어예배 7:00PM / 안디옥
- 영아/유치부 어와나 7:00PM / 나사렛
- 유년부 어와나 7:00PM / 베들레헴

금요모임

- Youth 7:00PM / 안디옥
- 영어청년 7:00PM / 안디옥
- 한글학교 6:00PM / 각교실

새벽예배

- 한어부 월-토 6:00AM / 본 당
- 영어부 화-토 6:00AM / N-202

주일예배

- 장년 한어예배 1부 7:40AM / 본 당
- 장년 영어예배 2부 9:20AM / 본 당
- 장년 한어예배 3부 11:00AM / 본 당
- 사랑부 예배 (장애인) 1:20PM / 베들레헴

- 영아부 예배 9:30, 11:00AM / O-3
- 유치부 예배 9:30, 11:00AM / 나사렛
- 유년부 예배 9:30AM / 나사렛
- 11:00AM / 베들레헴

청년/Youth 예배 11:00AM / 안디옥



담임목사 송 경 원

Phone: 253.535.5803 Fax: 253.535.2240
 Address: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
 Email: tfbc002@gmail.com
 데이터케어 253.535.9435 | 기도원 253.847.2250



주일예배

- * 경배와찬양** 1부: “내가 매일 기쁘게”, 427장(새 191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495장 (새 438장) “참 즐거운 노래를” 49장(새482장)
3부: “선하신 목자”, “감사와 찬양 드리며”, “아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주(후렴)”
- 대표기도** 1부: 권태운 은퇴안수집사
3부: 이재찬 집사
- 봉헌찬양** 1,3부: 434장(새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 공동체소식** 송경원 목사
- * 성경 말씀** 시편 23:1-2
- 설교제목** “선한 목자 되신 주님”
- 말씀선포** 송경원 목사
- * 응답찬송** 1,3부: 442장(새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주”
- * 축도**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

수요성령예배

예배위원

- 찬양과기도** 수요찬양팀
- 대표기도** 이명순 집사
- 제목** “성령 안에서 말씀을 대하는 자세”
-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42-49
- 말씀선포** 송경원 목사

- 이** 1부: 권태운 은퇴안수집사
- 번** 3부: 이재찬 집사
- 주** 수요: 이명순 집사
- 다** 1부: 박종길 은퇴안수집사
- 음** 3부: 안병철 집사
- 주** 수요: 이미선 집사

드러진 예물

공동체소식

-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사랑부 야외 예배: 8/7(오늘) 11시 장소:와파토 공원
- 지난 주일(7/31) 제직회 결과: 교회 공사(본당 지붕 교체, 구성전 및 교육관 창문, 창문틀, 블라인드 교체) 승인 됨
- 사무처리회: 8/14(주일) 오후 1:15 본당, 안건 - 교회 공사 건
- 하나님의 VIP 3기는 9월로 연기되었습니다.
- 유스/청년 사역 광고(문의: 안재훈 목사)
 - 유스 Lock In: 여학생 Lock In(8/12-13), 준비물: 침낭, 세면도구, 편한옷/신발
 - 유스 학부모 모임: 8/7(오늘) 3부 예배후, 안디옥. (예배 및 수련회 관련)
 - 유스 Homeless사역을 위해 8/21까지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도네이션 박스: 본당, 안디옥 로비 도네이션 물건: 칫솔, 치약, hand sanitizer, 샴푸(작은것), 비누, 양말(새것), 티슈등
 - 유스/청년 여름수련회: 8/23(화)-26(금), 장소:Black Diamond Camp
강사: 다니엘 리 목사(Living Water Fellowship, Houston TX)
등록비: \$120(8/7까지), \$150 (8/7이후)
- 어린이 부서 광고 (문의: 리아안 전도사)
 - 어린이 Lock In: 대상: 5-6학년, 8/19(금) 오후 5시 - 8/20(토) 오전 11시
 - 학부모 모임: 8/28(주일) 오후 1시. 안디옥 성전
 - 유년부/유치부 오전 9:30 예배를 섬겨줄 교사와, 11시 영아부를 섬겨줄 교사를 모집합니다.
 - Fern Hill 초등학교의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새학년 준비를 위한 학용품과 학교가방을 도네이션 받습니다. 도네이션 박스는 로비에 있습니다.
 - Kids Summer Wednesday Night Program: 8월 매주 수요일 오후 7:00-8:15
*유치부: Summer Book Club, 장소-나사렛 *유년부: CANDY Program, 장소-베들레헴
- 2022-2023 어와나 개강 및 모집: 9/7(수) 오후 7:00-8:20, 새학년 어와나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수요 어와나에서 교사로 섬기실 분을 모집합니다.(문의: Leah An 전도사)
※ 대상: 3-5세(Cubbies), K-2학년(Sparks), 3-6학년(T&T)
※ 1인당 \$65 / 등록: 온라인으로 신청(교회 홈페이지)
- 9월에 계획된 부흥회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교회여 일어나라"
일시: 9/9(금)-11(주일). 강사: 에릭신 목사 (휴스턴서울침례교회 영어회중 담임목사)

행정사역

- 학생부 사역자 청빙 과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8월에는 월요일 새벽예배를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사역자 동정: 전우일 목사 휴가: 8/1-13

24시간 기도 핫라인: 남궁곤 목사(253-753-8310), 봉숙오글 전도사(253-359-7869)

교우동정

중보: Sharon Burkenbine, Conard Goering, Mack Horne, Rick Dollar, William Ellis, Eric Mose, Ken Adkins, Wilbur Moore, Clarence Turner, 금예크라우치, 광순가이, 금순라버츠, 서인자, 임숙깁빈, 박지영, 이광우, 오창자, 정앤젤라